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영암도기박물관 찾아온다

내년 5월 ‘국보순회전’ 개최...고대 백제 문화 ‘한자리에’ 지역 문화 인프라 홍보·지역민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내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의 보물이 영암군민을 찾아온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도기박물관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2026년 국보순회전’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국보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시로, 내년 5월 중순 영암도기박물관에서 전국 세 번째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시에서는 ‘백제문양전’을 주제로 세련된 문양과 조형미를 담은 문화유산이 소개된다. 대표 전시품은 ‘산수무늬 벽돌’, ‘봉황무늬 벽돌’로 문양이 들어 있는 것들이다.



봉황무늬 전돌



산수무늬 전돌

두 문양 벽돌은 백제인의 뛰어난 조형 감각과 자연을 바라보는 미의식이 빛어낸 대표 유물이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국보순회전을 통해 영암군민에게 고대 백제 문화의 예술성과 역사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아울러 국보순회전을 계기로 도기박물관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알리고, 지역민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국보순회전 선정 때 영암도기박물관은 제외됐지만 이후 전담 학에 인력 확보, 전시 운영 세부계획 수립, 국립 기관 협업 체계 강화 등으로 전시 준비 역량을 보완해 최종 전시 장소로 선정됐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국보순회전은 지역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중요

한 문화적 계기다”며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개발로 더 많은 관람객이 영암을 찾고 지역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2026 국보순회전 개최지는 총 6곳으로 상반기 영암도기박물관 ‘백제문양전’, 의령 의병박물관 ‘상감청자’, 진천 중박물관 ‘청화백자’, 하반기에는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농경문장동기’, 청도박물관 ‘금관’,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백자’가 예정돼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의료·복지 전문화’ 내내 통합돌봄 본격 준비...‘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촉식에서는 의료·복지·보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 22일까지 2년간이다. 이어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실무분과 조직·운영 방안,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서 심의·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실행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통합지원협의체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강진원 군수는 “의료와 복지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강진형 통합돌봄 체계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강진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무안,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비 등 지원

무안군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식품위생 영업자와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장티푸스, 파티티푸스, 폐결핵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 검사·진단서 발급은 군 보건소에서 3000원에 할 수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2만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생업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군은 최근 건강진단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4개소(무안종합병원·남악온누리내과의원·남악복음내과의원·남악하나내과의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곳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 3000원에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군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 2700여개소의 영업주와 종사자이며 해당 사업은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1000여명의 종사자들이 지원받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도 지속될 예정이다. 나상현 군 보건행정과장은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해남,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저체온증·동상 예방 위한 건강수칙 강조

해남군은 겨울철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 지역 내 의료기관인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과 협력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오한, 피로감, 의식 혼미, 감각 저하 등이 나타난다. 특히 저체온증은 초

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만큼 기온이 낮은 날에는 무리한 외출을 피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신중하게 옷을 입는다. 아울러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정한 실내 온·습도 유지, 방한용품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한랭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추위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겨울철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진도 문화진흥기금 기탁 ‘역대 최다’ 참여

지역 예술인·단체 지원...문화예술에 ‘은기’

올해 진도군 문화진흥기금에 역대 최다 인원이 기탁에 참여하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최근 ‘2025년 진도 예술인의 날’ 행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뜻을 모았다. 기탁에는 강정학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 부회장 200만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 100만원, 한국국악협회 진도지부 100만원, 한

국문인협회 진도지부 100만원, 한국미술협회 진도지부 100만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진도지부 100만원 등 참여가 줄을 이었다. 또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진도지회와 임현호 진도군 청년문화 아트컴퍼니 아이라 대표 등이 각각 100만원, 박주생 진도 현대미술관장 30만원, 박승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진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등도 기부에 참여하며 정성을 보였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이희춘 진도북놀이보존회 회장과 한국농업진흥청의 진도지부가 각각 100만원을 기탁하며,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보탠 바 있다. 군 문화진흥기금은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1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9억원이 조성됐다. 조성된 기금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복지 지원과 예술인 육성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399@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